환경도 생각하고…힐링도 하고…

아이와 떠나는 '친환경 여행지' 4곳

서울 선유도공원·문화비축기지

폐정수장·석유 저장 공간 새 단장 생태공원 거닐고 전시·공연 체험

울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음식물 처리장이 '문화 공간'으로 집 설계·시공 등 놀이 프로 다양

제주 서귀포 빛의벙커

수년간 방치된 케이블 관리 시설 빛·음악 가득한 궁전으로 탈바꿈

올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미닝아 웃'(Meaning Out, 소비를 통해 신념이나 가치관을 노출) 트렌드는 2022년에도 더 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환경 을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여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신년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오붓한 나 들이나 여행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가치소 비'를 할 수 있는 여행지들은 어떨까.

최근 몇 년간 폐건물이나 버려진 산업시 설을 도시재생을 통해 되살려 새로운 의미 와 가치를 부여하는 '다시 태어난 여행지' 들이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 가 나들이의 즐거움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 낀다면 새해에 걸맞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서울, 폐정수장과 석유비축기지의 변신

2002년 개장한 영등포 선유도공원은 서울시민의 수돗물을 생산하던 폐정수장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몄다.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던 약품 침전지는 '수질 정화원'으로 변신했다. 정수지는 상판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 남겨 '녹색 기둥의 정원'으로, 침전지는 '시간의 정원'으로 바꾸었다. 두곳 모두 인기 포토 존이다. 농축조와 조정조를 재활용한 '환경 교실'과 '환경 놀이마당', 취수 펌프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나루'도 인상적이다.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쪽 매봉산 자락에는 1970년대 건설한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있었다. 이 거대한 산업시설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폐쇄됐다. 이후 한동안 버려진 폐시설이던 곳이 2017년 '마포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생태 문화공원이다. 석유를 저장하던 탱크시설(T1~T5)은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예술 공간이 되었다. 탱크 원형이 그대로 남은 T3를 비롯한 공간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탱크 T1과 T2를 해체할 때 나온





■ 폐정수장을 재활용해 환경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선유도 공원. ②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조성한 울산 세대공감창의놀 이터의 그물놀이터. ③ 과거 석유가 가득 찼던 탱크였던 마포 문화비축기지의 T4 내 부. ④ 서귀포 빛의벙커에서 샤갈의 그림을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앞에 선 아이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철판으로 만든 T6에는 카페와 강의실, 회 의실, 생태 도서관 '에코라운지' 등을 갖춘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다.

●울산, 혐오시설이 매력공간으로

울산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혐오시설이던 음식물 처리장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울산 북구가주민 의견을 수렴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놀이 공간, 가족 중심 공동체와 문화예술 활동 체험공간을 지향한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가 상설 운영되는데 아이보다 학부모에게 더 사랑받는다.

이곳은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이 집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청소년 건축학교', 지구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을 습득하는 '지구별 생존기', 부자가 더욱 가까워지는 '아빠와 함

께하는 1박 2일 놀이캠프'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인근 정자항은 울산 북구의 대표적 항구로 남쪽 방파제의 귀신고래등대가 명물이다. 강동화암주상절리는 동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주상절리로 수평이나 수직으로 형성된 다양한 생김새가 볼만하다.

●서귀포, 어둠의 벙커에서 궁전으로

서귀포 '빛의벙커'는 원래 KT가 국가 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해 해저 광케이블을 관리하던 국가 기간 시설이었다.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로 1990년 완공했다.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 10m로 벽 두께가 3m에 이른다. 보안을 위해 건물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마치 산의 일부처럼 위장했다. 존재 자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건물은 2000년 초부터 방치되다가 2012년 민간에 불하되면서 공개됐다.

2015년 제주커피박물관 바움이 옛 사무실과 숙소동에 입주했고, 2018년에 빛의벙커가 개관했다. 빛의벙커는 개관 기념 전시로 '구스타프 클림트-색채의 향연'과 2019년 '빈센트 반 고흐-별이 빛나는 밤'을 열었다. 현재 르누아르와 모네, 샤갈, 클레 등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전시한다. 빛의벙커 옆 제주커피박물관 바움은 창이 넓어 숲을 바라보며 커피 마시기 좋다.

광치기해변은 빛의벙커에서 가장 가까 운 해변이다. 이끼 낀 빌레(너럭바위)와 성 산일출봉이 장관이다. 본태박물관은 전통 공예품과 거장의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한 다. 2관 2층 통로에서 보이는 제주 바다 뷰 가 일품으로 소문났다. 서귀포 매일올레시 장은 제주의 다양한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먹부림' 천국이다.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나무와 각종 식물을 통해 얼음정원의 콘셉트로 꾸민 롯데월드 아 이스가든 사진제공 |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대변신' '아이스가든'으로 리뉴얼 오픈

개장 32주년 맞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지하 3층의 아이스링크 가 개장 32주년을 맞아 복합문화공간인 '아이스가든'으 로 리뉴얼 오픈했다.

1989년 7월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개장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는 6개월의 공사를 거쳐 체험과 힐링을 경험할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아이스가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얼음 정원'을 콘셉트로 대형 나무와 식물들이 곳곳에 휴식공간과 어우러져 있다. 전체 면적의 약40%를 휴식 및 편의공간으로 구성했다. 인기 카페와 식당 등 다양한 식음 및 상품 매장부터 서점과 각종 체험시설,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다.

최대 800명을 동시 수용 가능한 스케이트장은 낮에는 천정 유리돔의 자연채광을 통해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 다. 야간에는 조명을 화려하게 업그레이드해 다양한 색 깔의 빛과 이색적인 무늬로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 기를 연출한다. 1월부터는 빛을 내는 LED 스케이트화 도 대여한다. 전문 강사들에게 배우는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강습도 진행한다.

빙판 안전도를 위해 최고급 아이스매트를 사용했으며 탈의실에서 스케이트장까지 통로 바닥에 고무 재질을 적용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벽면에는 70mm 두께의 스펀지를 설치했고, 안전요원들이 상주한다.

아이스가든 스케이트장 이용은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추후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조정 및 대관 운영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기자 oldfield@donga.com



신세계면세점, 호랑이 골든바 증정 이벤트

신세계면세점은 검은 호랑이해를 기념해 홍콩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주대복(Chow Tai Fook)과 호랑이 골드 바를 증정하는 '2022년 저-를 받으세요'(사진)를 진행한다. 1월 말까지 온라인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가능하며 내국인 회원이면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 1등(1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30g 호랑이 골드바를 선물하며 2등(15명)에게는 호랑이 펜던트를 증정한다. 신세계면세점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썸머니 1000원도 1000명에게 증정한다.

오늘의 날	31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 \	-11 -4	\	-10 -4	\	-14 -3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 \	-8 1	\	-8 0	\	-6 1
광주	60/0	대구	0/0	부산	0/0
**	- 5	\	- 7	\	-5 4
창원	0/0	제주	6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 6	₩	3 6	날씨 .	^{오진(오우)} 최저 ^{최고기온°C}

人至之 を The sportsdonga						'36호			
발행인·편집약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	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	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구독료	L: 한달 12,	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	10 제보‥	투고 02-361-	-1616 so	ol@donga	.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31일 (금) 음력: 11월 2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